

김옥균 망명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

한성민(대전대학교)

【발표요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화파는 1884년 12월 4일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불과 3일만에 실패로 끝나고 그들은 일본에 망명했다. 그들은 근대 일본사회가 받아들인 최초의 정치 망명자였다.

망명 이후의 김옥균의 행동은 항상 조선, 일본, 청나라 정부의 관심사였으며 ‘김옥균 인도(引渡) 문제’는 중요한 외교적 쟁점이었다. 일본에서의 김옥균에 대한 처우는 일본정부의 내각결정에 의해 행해졌다. 따라서 망명 후의 김옥균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갑신정변 이후의 한일관계 또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옥균을 비롯한 조선인 망명자들은 본국으로부터의 계속되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갑신정변과의 관련을 부정하고 김옥균 일행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기는 커녕, 망명로서도 대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신문보도 등으로 인해 일본사회의 반(反)조선·반(反)청나라의 감정을 자극하고 개화파를 ‘일본당(黨)’으로 칭하는 등, 김옥균 일행은 일본의 민간사회로부터는 깊은 동정과 지원을 받았다. 이후 조선인 망명자는 일본사회에서 큰 관심대상이 되었다.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했던 시기는 일본이 구미와의 불평등조약의 철폐에 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망명자 김옥균의 존재는 일본의 구미화·문명화를 재기 위한 척도와 같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근대 일본사회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으로부터의 정치망명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대응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약력】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 동국대학교 강사,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대전대학교 강사, 강의전담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 주요 연구논저로는 「개항 후(1882~1894) 청국의 치외법권 행사와 조선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2007. 12), 「을사조약 이후 한, 청 간 치외법권 연구(1906~1910)」 『한국근현대사연구』(2008. 9), 「일본정부의 안중근 재판 개입과 그 불법성」 『사학연구』(2009. 12), 「구라치 데츠키치(倉知鐵吉)의 ‘韓國併合’ 계획 입안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2010. 9), 「황실특과유학생의 동맹퇴교운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 『역사와 현실』(2014. 9), 「제 2 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特使에 대한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2015. 8), 「乙巳條約 이후 일본의 ‘韓國併合’ 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2016. 8), 「일본정부의 ‘韓國併合’ 실행계획 수립 과정 : 「구라치 案」과 「아키야마 案」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2018. 6), 「망명자 김옥균(金玉均)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처우와 조선정책(1884~1890)」 『역사와 현실』(2018. 9) 등이 있다.